

다시 지역에서

작성자 김유리 서울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제출일 2024년 5월 7일

검토일 2024년 5월 10일

승인일 2024년 6월 7일

녹색당서울특별시당 운영위원회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총평

서울녹색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국당과 적극 결합해 '전국' 차원의 선거를 함께 치름. 먼저, 강서 선거에서 진보정당 간 후보 단일화 협상을 열고,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이루는 큰 흐름을 만들고자 했음. 그 결과, 총선에서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이 결정되어 녹색당은 당 역사 최초로 원내 진입의 목표를 가장 현실화함. 서울녹색당은 당 내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녹색당의 선거 대응 기구에 주요 역할을 맡아 참여함. 하지만 선거 결과, 비례득표율이 2.14%에 그쳐 목표 달성에 실패함.

녹색당의 총선 목표는 원내 진입이었음. 녹색당은 자력으로 원내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거연합으로 분산된 진보정당의 표를 모아 의석 한 석을 얻고자 했음. 하지만 정권심판론의 대두 등으로 녹색정의당은 최소 3~4%의 비례득표율도 얻지 못함.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당에 자원을 집중하고, 중앙에서의 정당 간 협상에 치중했기에 이 방식에 비판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음. 녹색당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지역에서' 집중해야 함. 지역을 다지고, 현장을 찾고, 정당의 지역 정치인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함.

서울녹색당 역시 '다시 지역에서'의 활동에 집중해야 함. 서울시당이 다음 총선에서도 전국 선거에 결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정도와 역할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서울 기초지역 재건 및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대책본부를 독립 구성해야 함. 더 많은 서울 당원의 온오프라인 참여를 조직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를 목적으로 한 단위의 구성이 필수임. 그나마 서울시당이 녹색당 전략지역구 마포선거대책본부를 지원하며 서울 당원의 참여를 일부 조직하긴 했지만 서울선거대책본부로서 서울 당원의 선거 참여의 다양한 방식과 통로를 만들지 못해 비판 평가받아야 함.

‘다시 지역에서’의 집중은 다음 총선에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를 준비하는 2년간 이뤄야 함. 서울녹색당은 운영위원회에서 각 기초지역당의 상황을 파악해 ‘선택과 집중’하는 기초지역 선정, 후보 육성 계획을 논의하고, 1년 6개월 전에는 결의를 모아내야 함. ‘당선’이라는 다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 설정이 아니라 2~3개의 기초지역에서 녹색 지역정치 안착과 지역 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함. 총선 평가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방선거일까지 지역 활동, 정당에서 성장하는 정치인의 행보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 평가서는 김유리 서울시당공동운영위원장이 작성하고, 서울운영위원회가 검토 후 승인 함. 이 평가서는 기초지역 순회간담회에서 토론을 여는 발제 자료로 활용했고, 발제 이후 당원의 토론 및 의견을 추가 기록하여 총선 평가 자료집으로 완성하였음.

키워드: 녹색당, 총선, 서울녹색당, 지역당, 중앙집중, 지역, 선거연합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평가

전국 협력

서울녹색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이하 총대위)>에 전 인력을 투입해 전국과의 협력을 도모함. 녹색당이 5인의 당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임시 대표 1인과 임시 사무처장 1인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국 선거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했음. 서울녹색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은 총대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박제민 전 공동운영위원장은 종합상황실장을, 조준희 사무처장은 전략기획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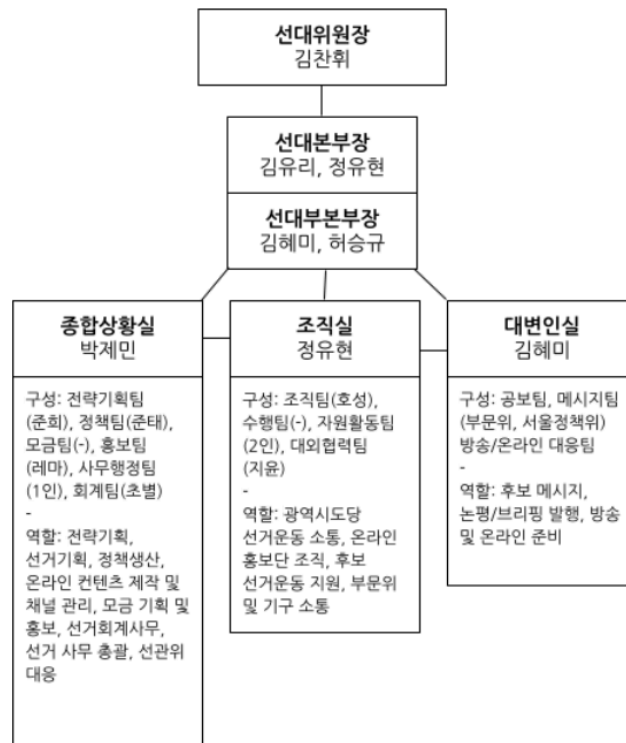


그림 1.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 조직도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총대위에서 김유리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전국위원회 및 총선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안건 준비, 녹색기후단체 상설협의기구추진 등을 맡았음. 박제민 종합상황실장은 녹색정의당 출범대회, 모금 사업, 홍보 및 정치기획 총괄 등을 맡았음. 조준희 전략기획자는 기후정치대회 총괄, 녹색정의당 출범대회, 녹색정의당 정책 개발 등을 담당했음.

서울녹색당은 다음 총선에서 기존 전국사무처 구조의 영향권 바깥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말아야 함. 또, 총선은 단일 선거였던 강서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와 지역선거 본부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기에 서울녹색당은 전국 선거에서 분리한 서울선본을 구성하고, 지역선본 지원에 집중해야 함.

서울시당이 녹색당 총선에 결합할 수 있는 정도는 정무적 결정을 하는 단위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상설협의기구 추진, 기후정치대회와 같은 프로젝트 공동 기획임. 총대위는 전국사무처가 선거 국면에서 일시 전환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기존 전국사무처의 운영 구조에 서울시당 인력이 추가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이중 소통이나 이중의 승인 체계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기존 전국사무처의 운영 체제가 존속하기에 시당에서 결합한 인력이 전국사무처의 운영 내용과 방식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실제로 <그림 1.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 조직도>는 2월,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녹색당 인력 중심으로 변동이 있었음. 마포선거대책본부, 녹색정의당 녹색본부 및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서울시당 인력이 이중, 삼중의 역할을 맡으며 업무 과부하를 겪음. 이 시기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퇴를 결정하기도 했음. 사후 수습하는 차원에서 조준희 사무처장은 총대위 집행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의 정책 개발을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정리하고, 마포선거대책본부에서 사무 총괄에 집중했고,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은 3월 초 마포선거대책본부에 상근을 시작함.

다시 정리하면 서울녹색당은 다음 총선에서 전국 협력시 사전에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논의해 역할을 맡고,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서울 지역 조직 및 당원의 참여를 조직하는 서울선거대책본부를 필수 구성하고, 지역선본 지원에 집중해야 함.

서울 선거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의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전국당에 자원을 집중하고, 중앙에서의 정치 협상에 치중했지만 원내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함. 앞으로 녹색당은 이번 총선 방식과 목표를 평가하며 국회 입성이라는 목표를 장기 과제로 변경해야 함.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다시 지역으로, 다시 현장으로, 다시 지역 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으로 녹색당의 주요 방향을 설정해야 함. 중앙/전국 차원에서 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과 함께 지역에서 지역 정치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함.

서울녹색당은 당의 유일한 지역구 마포갑 김혜미 후보의 선거를 치르며 마포라는 지역, 지역의 중요성, 마포 정치인 김혜미를 남겼음. 이번 총선에서 서울녹색당의 성과는 대부분 마포 선거에서 찾을 수 있음. 하지만 서울시당이 전국 선거에 결합하여 이중, 삼중의 역할을 하느라 마포선거대책본부에 집중 지원을 다소 늦게 한 점은 평가로 남겨야 함. 결국 광역시도당은 지역구 선거에 집중해야 다음 선거에 필요한 성과도, 평가도 남길 수 있음.

전국위원회 차원에서도 전략지역구 평가가 필요함. 기존 정치 관행에서 전략지역구는 전략공천 지역 선정을 의미함. 녹색당의 전략지역구는 자원의 집중을 결정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녹색당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선정이라고 할 수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있음.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전략지역구 개념이나 그 기준을 충분히 외화하지 못해 당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함. 다음 전략지역구 결정시 당내외에 대표 명의, 해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명의 등 다양한 통로로 당원의 공감대를 얻고, 시민사회, 언론에서도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음 선거에서 전략지역구 선정시 해당 광역시도당뿐 아니라 전국사무처 인력 또한 배치해야 함. 전국사무처 인력 배치로 전국 차원에서 지역선본을 지원하고, 녹색당 선거대책위원회와의 연결망을 구축해야 함. 선거에서 초기 선본의 방향성 구축이 매우 중요하지만 마포 선본에 초기 상근 인력이 부족했음. 아래 <그림 2. 김혜미 선거대책본부 조직도>에서 초기부터 상근한 담당자는 실무 총괄을 맡은 서울시당의 사무처장 조준희, 상황팀장 마포녹색당운영위원회 공시형 뿐이었음. 초기 선본 구성부터 전국사무처의 인력을 배치하면 전국당의 자원을 지역 선본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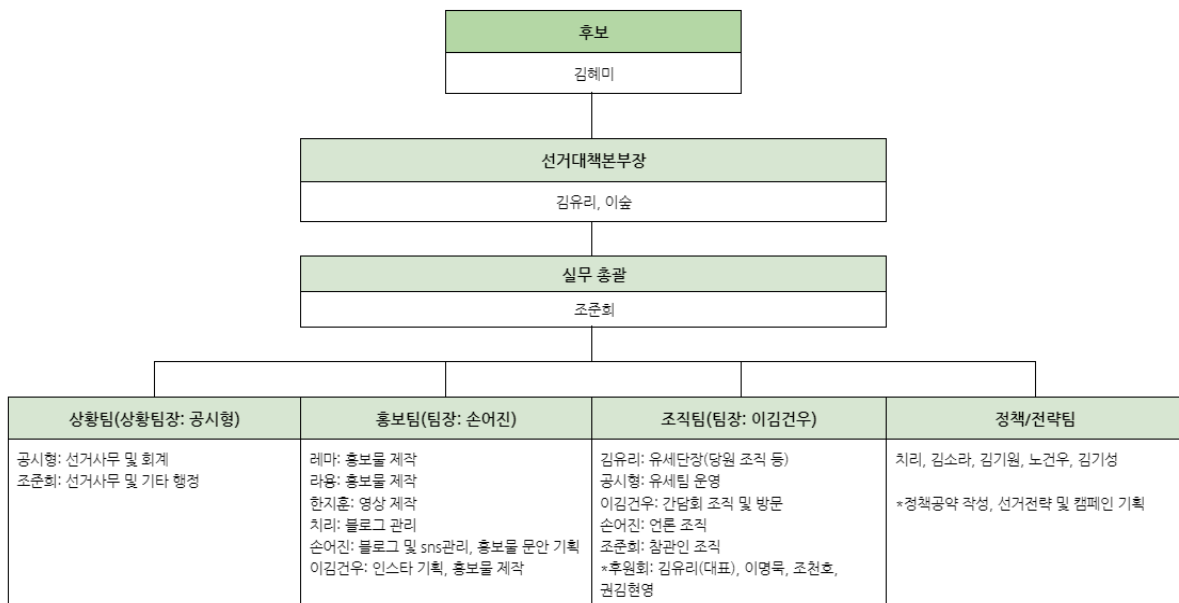


그림 2. 김혜미 선거대책본부 조직도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마포는 서울 기초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지방선거를 연속으로 치른 지역임. 마포는 다양성과 청년,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상징 지역이면서 동시에 쓰레기소각장, 에너지발전, 재개발, 교육 이슈가 있는 지역임. 김혜미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거를 치른 이후 마포에 정착해 공동운영위원장을 약 4년간 역임하며 마포 지역 정치를 지속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숲 선거대책본부에서 본부장을 맡아 마포 지역 정치의 연속성을 만들어왔음.

마포 지역에서의 선거가 없었다면 녹색당의 선거, 녹색당의 지역, 녹색당의 후보를 남길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서울녹색당은 이번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서울 당원의 오프라인 선거유세 조직, 서울녹색당 대의원과 기초지역운영위원회의 조직 참여 독려를 해야 함. 또, 서울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서울지역 단체, 노동, 진보정당과의 협조를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함. 다시 말해, 광역시도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 집중해야 연속하는 지역, 연속하는 지역 정치인을 만들 수 있음.

날짜	내용
12. 1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위원회)마포 갑 선거구를 2024년 총선 전략지역구로 결정 • (전국위원회)마포 갑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구를 서울 마포로 확정
12. 2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선관위)마포 갑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1. 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선관위)마포 갑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후보 확정
1. 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선관위)마포 갑 공직후보자 간담회(온라인)
1. 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선관위)마포 갑 공직후보자 간담회(오프라인)
2024. 1. 13.(토) ~ 2024. 1. 17.(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선관위)마포 갑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
1.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위원회)김혜미 당원 녹색당 후보로 인준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1. 2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 등록
1. 2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출근길 인사(대흥역) • 선거사무소 계약(2월 1일 입주)
1. 2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전략기획 회의 및 실무기획 회의
2. 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적 변경
2. 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정의당 출범대회 • 후보자후원회 모금 시작
2. 1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전략기획 회의
2. 1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유권자 간담회
2. 2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전략기획 회의
2. 2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마선언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3.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정의당 전국위원회)공직후보자 인준
3.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캠프 내부교육
3.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사무소 개소식
3. 2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등록
3. 28.(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선거기간 시작 및 출정식
3.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집중유세(연남파출소 앞)
4.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토론회 녹화
4. 3.(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토론회 방영
4. 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사전투표
4. 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집중유세(공덕파크자이 앞)
4.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벚꽃엔딩 집중유세(공덕파크자이 앞)
4.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유세(김준우 상임대표, 권영국 후보 등 참석, 공덕파크자이 앞)
4. 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정치를 향한 마포 집중유세(공덕파크자이 앞)
4.1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사(출퇴근길, 상가방문 등)

표 1. 김혜미 선거대책본부 주요 일정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인구수	확정된 선거인수		인구수 대비 선거인 비율(%)	세대수
160,749	계	139,968	87.1	77,170
	남	65,546		
	여	74,422		

표 2. 선거 정보: 마포구 갑(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읍면동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더민주 이지은		국힘 조정훈		녹색정의 김혜미		개혁신당 김기정		유효 투표 수	무효 투표 수	기권 자수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합계	139,968	101,086	72.22%	47,743	47.71%	48,342	48.30%	2,033	2.03%	1,959	1.96%	100,077	1,009	38,882
거소·선상투표	130	117	90.00%	55	47.41%	57	49.14%	0	0.00%	4	3.45%	116	1	13
관외사전투표	13,915	13,902	99.91%	7,683	55.87%	5,477	39.83%	288	2.09%	303	2.20%	13,751	151	13
국외부재자투표	899	662	73.64%	399	60.55%	233	35.36%	17	2.58%	10	1.52%	659	3	237
공덕동	27,041	17,130	63.35%	8,191	48.48%	8,061	47.71%	328	1.94%	316	1.87%	16,896	234	9,911
아현동	22,094	15,850	71.74%	6,951	44.22%	8,172	51.99%	267	1.70%	328	2.09%	15,718	132	6,244
도화동	17,863	13,194	73.86%	5,825	44.55%	6,754	51.65%	221	1.69%	276	2.11%	13,076	118	4,669
용강동	16,062	11,675	72.69%	5,138	44.34%	6,034	52.07%	198	1.71%	218	1.88%	11,588	87	4,387
대흥동	11,839	7,512	63.45%	3,578	48.24%	3,488	47.03%	187	2.52%	164	2.21%	7,417	95	4,327
염리동	13,404	9,587	71.52%	4,648	48.96%	4,423	46.59%	265	2.79%	158	1.66%	9,494	93	3,817
신수동	16,721	11,455	68.51%	5,274	46.43%	5,642	49.67%	262	2.31%	182	1.60%	11,360	95	5,266
잘못투입·구분된 투표지	0	2		1		1		0		0		2	0	-2

표 3. 선거결과 ※ 세부정보: [링크](#) / [지도](#)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선거연합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는 데에 법과 제도 상의 제약이 많음. 두 당이 균등한 구조를 구축해서 선거를 치를 수 없음. 녹색당에서는 주요 당직자, 후보가 탈당 후 플랫폼인 정의당에 입당해 선거를 치름. 녹색당과 정의당의 합의로 녹색정의당이라고 당명을 개정했지만 플랫폼 선거연합은 한 당의 운영 체계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임. 당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선거연합의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해 왔지만 실제 선거연합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의 대비,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음.

서울녹색당 역시 사전 준비가 부족했음. 녹색정의당 서울선거대책본부를 출범했지만 서울녹색당에서 결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고, 선거연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함. 사무처장과 운영위원장은 전국 결합, 마포선거를 지원하며 녹색정의당 서울선거대책본부 조직에 배치할 수 없었음. '처음'하는 선거연합이라는 점, 제도상의 한계, 서울시당의 전국 결합 기조로 서울시당 간 선거연합에 필요한 사전 논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함.

선거연합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행보도 있었음. 정의당서울시당 주도의 김포시 서울 편입 메가시티 토론회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선거연합 출범 기자회견, 상견례 등으로 접점을 만들어나감. 향후 선거연합을 한다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운영 면에서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또, 각 당의 정책 기조, 문화에서 오는 차이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해나가야 함.

제언

제언 1. 서울선거대책본부 출범

서울녹색당은 다음 총선에서 전국과 협력시 현실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역할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함. 무엇보다 서울시당 차원에서의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해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단체 및 정당과의 협력 조직에 힘쓰며, 서울 당원 참여의 경로를 만들어야 함. 총선에서 서울녹색당이 우선해야 하는 과제는 지역과 지역 정치인 지원임.

제언 2. 지역과 현장 집중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했다고 해도 녹색당은 '다시 지역에서' 집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방향 수립을 했을 거라고 예상함. 더구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을 다지고, 현장을 찾고, 지역 정치인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함. 하향식으로 녹색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과 함께 상향식으로 지역에서부터 정치 실력을 키우고, 효능감 높이는 정치를 해야 함. 어쩌면 중앙에서의 정치보다 지역에서 녹색당의 역할이 더욱 필요할 수 있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에서 다양한 의견 가운데 전국당에서의 녹색당의 인지도 높이기와 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논의를 다시 소환하고자 함. 녹색당은 강서 선거에서 총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에서의 정치 협상을 해보았고, 이제는 방향키를 지역으로 돌려야 함.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내용을 남기려면 서울녹색당은 지금부터 기초지역당과 함께 지역 정치 활성화와 지역 정치인의 발굴 및 육성을 논의하여

서울녹색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가


선거 준비에 나서야 함.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울녹색당은 2~3개 지역에서의 기초지역선거와 광역시의원선거 등으로의 집중 결정 논의를 시작해나가길 제안함.

첨부 자료

1.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 평가서

추후 첨부

2. 김혜미 마포선거대책본부 평가서

 김혜미캠프_선거 평가서(최종본)